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본 칼빈의 영성”에 관한 논평

마크 크레이처 (고신대학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상당한 유익을 얻었다. 말씀과 경험에 대한 신앙의 관계에 대한 마리스 교수의 토론은 당대의 주관적 교리를 향한 칼빈의 강력한 논박에 대한 탁월한 요약이며, 이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더하고 싶다. 그는 다양한 학문적 작업에 대해서 훌륭한 요약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점을 나는 높이 평가한다. 더욱이 칼빈 신학에 있어서 ‘신비로운 연합’의 개념에 대한 마리스 교수의 강조를 높이 평가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살아있고 실제적인 신앙의 초석이다. 비록 지난 몇 년 동안 재강조 되기는 하였지만 이 가르침은 개혁주의 전통, 특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상당히 무시되어 왔다. 칼빈 신학의 결정적인 측면에 대한 마리스 교수의 새로운 강조는 성경적 사회 이론을 실제적 삶의 정황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칼빈주의적 노력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정 작업이다. 이는 특히 본인이 몸담고 있는 미국의 상황에 특히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마리스 교수의 결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칼빈의 영성은 신앙의 영성인데 이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삶으로 가득찬 신앙과 신앙으로 가득찬 신앙이다.”

본 논문은 탁월하지만 칼빈의 영성이 지닌 총체적인 성격을 요약적으로 해설한다는 점에 있어서 나는 놀랐고 불편함을 느낀다. 여기에서 나는 논자가 특별히 집중하기 위해서 주제를 제한해야만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 또한 마리스 교수는 화란 기독교개혁교회의 교수로서 칼빈의 신학을 이런 식으로 자르지는 않는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마리스 교수가 더욱 총체적인 접근방식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롭게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현대적 문화 속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칼빈의 메시지에서 도출된 총체적 영성이라고 믿는다.

칼빈이 스토아주의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이원론의 몇 가지 측면과 관련된 경향을 지니고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

해서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놓으려는 그의 노력을 좌절시키는 못했다. 칼빈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주해가 단지 개별적 신자들의 변화와 구원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영성과 성령을 통해 부여받은 능력으로 행해진 사역은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변화된 제네바에 적용하기를 추구했다. 그는 학생들이 제네바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초대하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유럽 전체에 걸쳐 종교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다. 제네바의 사례를 통하여 칼빈에게 주어진 성령의 사역은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크롬웰 치하의 영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청교도적 뉴잉글랜드를 변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칼빈의 영성적 토대는 프랑스의 휴그노들로 하여금 왕정의 독재적 횡포와 더불어 싸우는데 필요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는 또한 네덜란드인들에게 스페인의 독재로부터 종교개혁적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스코틀랜드의 언약주의자들에게 스코틀랜드 전국의 개혁을 시도하는데 필요한 열정과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칼빈주의적 영성은 아메리카의 식민지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대적 자유를 찬탈하였던 당대의 영국 왕정의 엄청난 세력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승리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제공하였다. 칼빈주의적 영성은 아메리카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칼빈주의적 미국의 헌법을 작성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었다. 칼빈주의적 영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십계명이 제시하는 두 가지 권한과 책임이 기독교화된 사회적 질서 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칼빈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기를 추구하는 영성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지녔다. 그의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언어, 그리고 부족에게 하나님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던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였다. 복음의 대위임령은 경제, 국정 운영기술, 기원과학, 의료윤리, 전쟁론과 같은 무시된 영역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전체를 포함한다.

본인은 마리스 교수의 이 탁월한 논문에 이러한 영역들에 관한 영적 비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러한 총체적 영성은 삶의 모든 영역, 즉 피조 세계 전체의 갱신에 드러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과 칼빈주의적 강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 시대의 문화에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갱신은 카이퍼, 폴른호븐, 도이에르비어트, 스토커, 그리고 반틸과 그의 제자들이 지난 세기에 정복하기 위해서 사역했던 개인 중심적이며 이원론적 영성의 갱신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축소된 영성으로 귀환하려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시저의 군대에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칼빈의 영성은 이것 또는 저것을 선택하는 영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 영성이었다. 칼빈은 성령이 가르치시는 필수적 경건으로부터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았다. 칼빈은 참된 성령이 가르치시는 필수적인 경건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기를 원했다.

(이 번역은 논평의 전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 - 역자)